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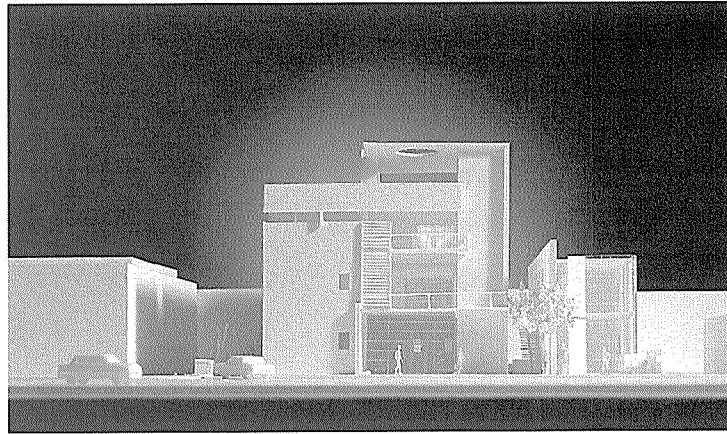
박탈된 것의 영토화를 위하여

To Territorialize the Privatized

이종건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Jongkeu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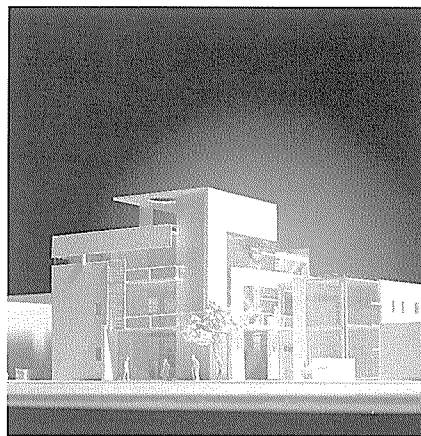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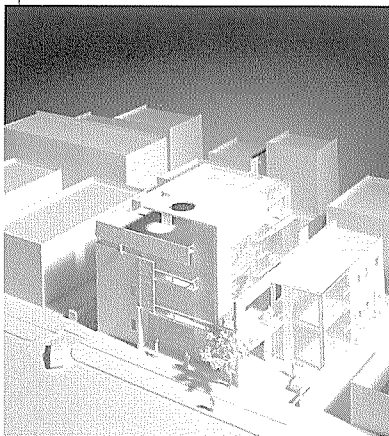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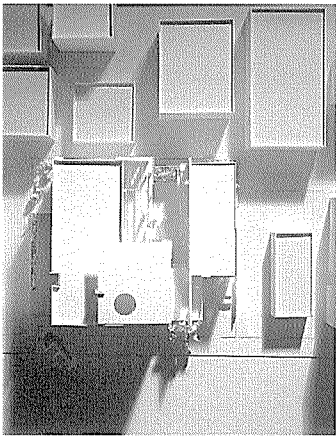
건축은 무엇보다 땅의 예술이요, 땅에 대한 예술이요, 땅을 위한 예술이다. 굳이 비트루비우스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그에 따르면 건축이란 땅 가꾸기, 시간-기계, 그리고 건물로 구성된다) 건축은 땅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온당한 정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땅을 채우고, 또 그 땅은 어떻게 차지(영토화)하는지, 건축가 뿐 아니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리 심각하게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물음들은 바깥(예컨대, 한나 아렌트와 질 들뢰즈 등)으로부터 온다. 마치 “강렬한 중심은 영토의 바깥에 놓여 있으며, 영토들이 수렴하는 매우 상이하고 매우 멀리 떨어진 점”으로 존재하고 있듯이 말이다.

건축을 공공예술이라 한다. 이 명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것이 상품으로 현상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가? 역사적으로 보건대, 건축은 늘 집단적인 의미(신성이며, 신화이며, 권력이며, 기억이었다)를 담보했다. 개인의 가치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열망하고 찬양하는 무엇을 표상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찬양할 것을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곧 건축이라 말했다. 건축의 역사는 따라서, 기념비적인 것의 끊임없는 펼침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탈역사의 조건(역사는 더 이상 선형적으로 전개하는 지배적인 어떤 성질의 진보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분기



한 채 앞뒤로 혹은 피차 충돌하며 방향없이 떠도는 무수한 흐름들이라는 시각)에서, 역사중언의 시대에서, 건축의 공공성을 더 이상 역사적 사건들로 정당화하고 합법화 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사유화되어 버린, 그렇지만 반드시 소유된 것만은 아닌(소유는 사유화와 달리, 외부의 무엇을 자기의 고유한 성분으로 변화시킬 때 자기화 할 수 있고, 그럴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 소비중심 사회에서, 땅 또한 건축의 공공성을 떠받치는 지지대일 수 없다. “공적인 것이 사적이 기능을 하는 까닭에”, 그리고 “사적인 것이 유일한 공동의 관심사로 남기 때문에”, 어쩌면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공공성은 이미 더 이상 유효한 언어가 아닐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것을 박탈당한 사적 인간(사적이라는 용어 private는 본디 ‘박탈된’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 곧 정치 혹은 세계성을 가능케 하는 공적 영역이 박탈된 상태를 뜻한다)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건축이 쇠퇴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것을 다시금 손에 쥐어 벌이고자 하는 일체의 건축활동은 노스텔지아의 연민어린 몸짓보다 더 곤궁한 한낱의 미몽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여전히 땅을 차지한다. 설령 그것이 영구한 대지는 아닐지라도. 설령 그것이 영속적인 시간은 아닐지라도. 건축은 심지어 허공에서도,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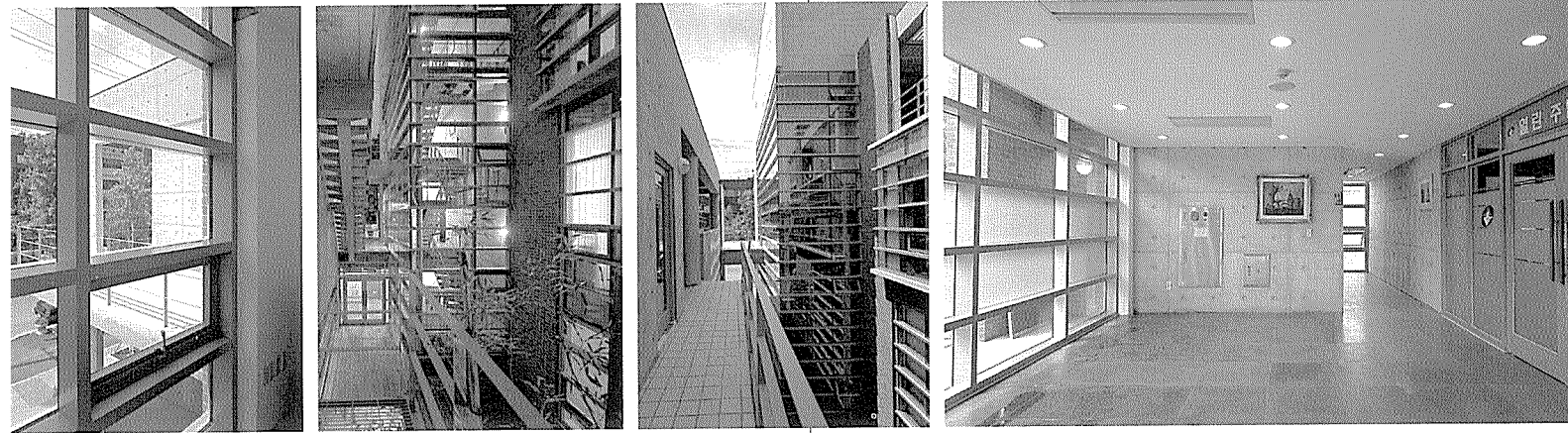


고 일시적이었지만 땅을 만든다. 건축은 본질적으로 영토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야 한다. 땅이 있어서 건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이 있는 한 땅은 생성된다고. 기념비적인 것은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적인 것이 모조리 사라진 조건에서, 건축의 과업은 이제, 여하히 공적인 것(혹은 사적인 것)에 둘레를 쳐주어, 새로운 땅을 생성(영토화)시킬 수 있을지로 나타난다. 더 정확히 말해서, 공동성/집단성이라는 질료를 찾아 거기에 어떤 이름이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토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박탈된 것을 구속(救贖)하는 작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땅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천 개의 고원」에서 들뢰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영토를 정의하는 것은 표현 질료(질)의 출현... 영토화는 표현력을 갖는 리듬을 만드는 행위거나, 질적인 것이 되는 환경의 성분이다.” 땅(영토화)은 한 마디로, 표현-화(devenir-expressif) 될 때, 곧 고유한 질의 출현으로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영토화는 이미 예술적 행위이며, “예술은 무엇보다도 우선 포스터 혹은 플래카드”일 수밖에 없다. 고유한 질이란 모티브와 대위법을 통해 전개되면서 출현한다는 그의 영토화 이론을 여기서 상술할 여지는 없다. 다만, 영토는 필연적으로 코드가 갖는 자유의 여백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무엇을 삽입하고, 그것이 만드는 간격 속에 존

재하는 것들을 다시 배치시키는 과정이 개입한다는 것, 한 마디로 “기능들의 재조직화”, “힘들의 재그룹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능들을 삽입하거나, 기존의 기능들을 변환시켜 성질을 바꾸는 공격성은, 따라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현대성의 상황은 그러한 작업들을, 더 이상 질료와 형식간의 관계나 형식의 연속적 발전과 질료의 연속적 변이가 아니라, 소재와 힘 간의 직접적인 관계로 조건지운다. “본질적인 것은 형식과 질료에 있는 것도, 주제에 있는 것도 아니며, 힘과 밀도, 강렬도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의 땅은 어떤 변형(혹은 다른 무엇으로 ‘되기’라는 과정)을 통해 강밀도를 확보함으로써(칸트의 숭고성 개념은, 비트루비우스적 건축의 세 특질 곧 강함, 아름다움, 유용함이라는 형식과 질료간의 관계를 넘어서게 하는 시작이다), 새로운 주름을 형성할 때 생긴다는 것이다.

중곡2동 문화복지관은 발주 측에서 동사무소, 파출소, 그리고 예비군 본부라는 집합에, 소위 문화산업 시대에 그럴싸하도록 이름붙인 공공건물인데, 건축가는 영토화 작업을 두 개의 블록 ‘사이’에서(들뢰즈에 따르면, 어떤 환경에 표현성을 부여하는 것은 리듬인데, 그것은 사이환경에서 발생한다) 벌인다. 수직동선을 사이를 형성하는 경계로 동원하면서, 그 사이를 새로운 바깥환경으로 변화시켜 두 블록의 내부환경과 접속시킨다. 움직이는 활동들은 이 지점에서 강밀



도를 형성한다. 그런데, 진정한 강밀도를 생산하는 리듬은, 오직 이질적인 블록과 더불어 작동하는 것으로서, 독단적이고 동질적인 박자와는 달리, “부등(不等)한 것(l'Inégal)이며, 통분불가능한 것(l'Incommensurable)이며, 언제나 횡단코드화되는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차이를 낳는 생산적인 반복으로서 박자와 달리 차이 반복이 아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차이의 계기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공간과 시각은 통제된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관으로 장악된다. 이종적인 것들(방문자와 공무원)간의 가로짓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간혹 불투명한, 그리고 다리가 잘린 외부의 시선들(주변 거주자)은 차이를 짓는 힘들의 복병으로 잠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밀도(혹은 그것을 생산하는 움직임들이나 풍경)는 표현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기능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온전히 포획된다.

건물을 구성하는 재료들 또한 주변세계와 상사성을 띠지만, 그러한 성질이나 관계가 표현으로까지 고양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안팎의 세계가 더불어 서 있고, 그런 가운데 차분한 중심을 형성하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현존하고 있지만, 다소 딱딱한 경계로 지각적인 침투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삼투의 방식으로 바깥세계를 은밀히 조절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의 배치도 기존의 코드에 속박되어 익명의 타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예컨대, 화장실을 공중화하는 식의) 기획을 박탈한다. 건물은 적절히 배

분된 평면과 잘 짜여진 형태구성을 작동시켜 공간에 일정 부분 생기를 작동시키지만, 거기에는 주변세계를 향한 플래카드의 몸짓도 없고, 주변 것들과 대위법적 관계망도 구성할 의향도 갖지 않은 채 단순히 체계 순응적으로 기능할 따름이다. 차분한 정돈, 소박한 꾸밈, 그리고 역동적인 동선의 배분으로 이러한 건물유형으로는 이례적인 건축적 질을 확보했지만, 공적인 것(혹은 사적인 것)에 대한 성찰, 그리고 표현화에 대한 치열하고 집중적인 작업의 부재로, 박탈된 것은 여전히 박탈된 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소유가 없다면, ‘공동적인 것은 소용이 없다.’, ‘표현적인 것은 소유적인 것에 선행하고, 표현적 질 혹은 표현의 질료는 필연적으로 소유를 향하며, 존재보다 깊은 곳에 뿌리를 둔 소유를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로크의 말이며, 들뢰즈의 말이다. ㉮